

좋은 임원은 만들어 진다! 🍷

임원을 뽑고 난 다음 우리는 임원 교육을 실시하고 수련회를 하지요. 물론 필요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바람직한 건 임원을 만드는 일이지요.

선거 운동? 설마 그럴 리야 없겠죠.

서울 광진구에 있는 K교회가 그렇게 하는 걸 봤고 '그래 바로 이거야'라는 생각이 들어 소개합니다.

<< 임원 만들기 >>

일찍 그러니까 중1 때부터 소수 정예의 제자반을 구성합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하고(K교회의 경우엔 [새벽나라]를 성경공부 교재로 썼대요) 삶을 나눴답니다. 신앙 생활은 물론이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성적 향상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부를 나눴지요. 나눴다는 말은 곧 '간섭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처음엔 선뜻 다짐을 앳던 친구들이 나중엔 달라졌답니다. 친구들 간에 경쟁심을 부추긴 것도 한몫을 했지요.

이런 훈련도 받는답니다. 시험 전날에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담긴 기도 모임이죠. 시험 공부를 해야 하니 망설일 수 밖에는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 이해한다. 그러면 이번 기도 모임엔 (미리 수제자 감으로 선발된 세 사람을 가리키며) 너, 너, 너, 세 사람만 오너라." 이 세 사람은 그동안 마치 요한, 야고보, 베드로처럼 인정을 받아오던 친구들이지요. 그래요. 이 친구들이 바로 임원 후보들입니다. 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임에 나옵니다.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험 전날 기도회에 참석한 이 친구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번 시험에서 어떤 성적을 얻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욕이 되기도 한다.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얻는지 보여주라."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쪽이었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은 친구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떤 자세로 공부를 했는지 추측하시겠죠?

<< 임원 선거 >>

K교회 중등부의 임원 선거는 우선 선생님과 목사님이 추천하는 두 사람을 놓고 회장, 부회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무슨 민주주의가 그러냐구요? 천만에요, 임원의 자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시 지도자들인 선생님과 목사님이죠. 그들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반영된다면 이것이 참 민주주의

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름만 민주주의지 실상은 민주주의의 깊은 의미를 잊어 버린 것 같습니다.

<< 임원회 운영 >>

이미 순종 잘하기로 소문난 친구들, 그래서 신앙 생활, 학업, 가정 생활 등에서 모범적인 친구들이 임원이 되면 이들은 한해 동안 그야말로 최고의 영적 경험들을 맛보게 됩니다.

주일 아침 가장 일찍 나와선 자리를 정돈하고, 학생회의 모든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임원 수련회는 팀워크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개인의 헌신에 대한 강조는 이미 제자 모임을 통해 단련되었기 때문이죠. 임원 수련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함께 뛰놀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예요.

매주 한차례 가지는 임원 모임, 학생회 돌아가는 이야기들로 자칫 딱딱해지기 쉽지만 K교회의 경우엔 따뜻한 나눔이 언제나 있습니다.

'진실 게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게임이죠. 촛불을 켜 놓고 술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만을 얘기해야 하는 게임 말예요. 그리고 게임 중에 들은 비밀은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해선 안되죠. 이런 단순한 놀이가 임원들 간에는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시간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지요. 엄청난 죄 고백조차도. 그래서 이름만 게임이지 그야말로 회개와 용서와 나눔과 고백의 시간이 된답니다.

어느 모임이나 지도자가 차지하는 자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렇게나 지도자를 세울 수도 없고 또 지도자를 기르는데 무관심해서도 안되지요. K교회가 보여주는 임원 만들기 모습은 탐낼 만한 자랑거리란 생각이 드네요.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